

글로벌 스토리북스



✎ Ursula Nafula
👤 Jesse Pietersen
📁 Jong Yong Park
|| 2
🗣️ 한국어 k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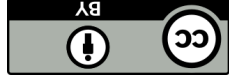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글로벌 스토리북스

✎ Ursula Nafula
👤 Jesse Pietersen
📁 Jong Yong Park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[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)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



여긴 칼라이예요. 그녀는 일곱살이
죠.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말 루복수
로 “좋은 아이” 라는 뜻 이예요.



칼라이는 학교로 걸어가요. 가는 길에 풀에게 말해요. “풀아, 더 초록색으로 자라고 마르지 말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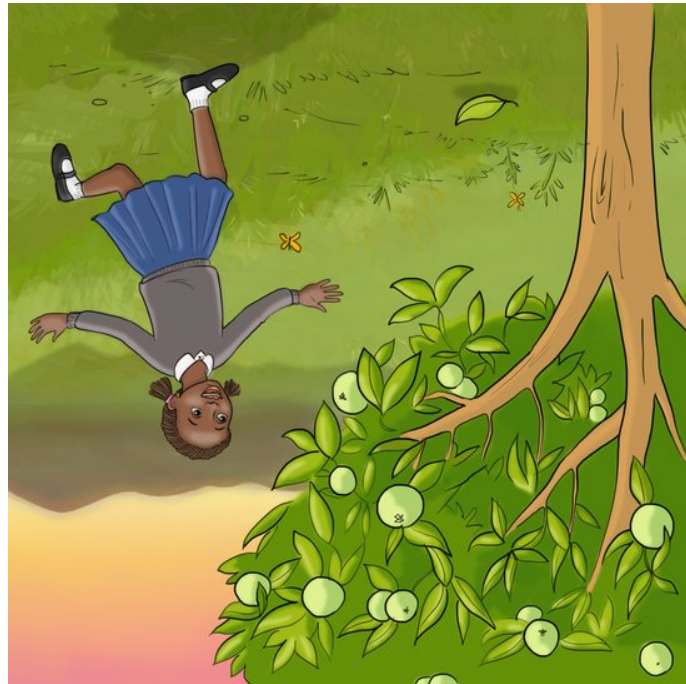


“오렌지가 아직 초록빛이구나,” 칼라이가 한숨을 쉬어요. “내일 보자, 오렌지 나무야.” 칼라이가 말해요. “어쩌면 그 때는 네가 날 위해 잘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!”

클라이는 아생화를 지나쳐가요. “꽃
를아, 계속해서 피어나서 너희를 내
머리에 꽃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클라이가 학교에서 진으로 돌아를
때, 오렌지 나무에게 들려요. “네
레지는 아직 있었니?” 클라이가 물어





학교에서, 칼라이는 단지 종양의 나무에게 말해요. “나무야, 큰 가지를 뺏어서 우리가 네 그늘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칼라이는 학교를 둘러싼 생울타리에 게 말해요. “강하게 자라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렴.”